

比較言語學的 管見에서 본 「비릇」

南 豊 鉉*

이 글은 筆者가 國語學 3輯에 發表한 「漢字借用表記法의 ‘元’字攷」에 이어서 생각해 본 것을 整理한 것이다. 同 論文에서 筆者는 古代國語 漢字借用表記의 「元」字가 15세기의 「비릇」에 해당되는 형태로 訓讀되었음을 推定했고 朝鮮朝의 散文(吏讀)表記에서 「始叱」과 「初亦」로 代替되었으며 그 뜻은 「始」, 「初」, 「本(본리)」의 뜻에서 “……부터”의 뜻으로도 쓰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것을 逆으로 생각해 보면 古代國語에서는 單一形態인 「비릇」으로 쓰이던 語辭가 後世로 내려오면서 「始作(ᄃᆞ)」, 「첫(처임)」, 「본더」, 「원리」 등으로 分化되었을 것으로 推測해 볼만한 것이다. 古代에 있어서는 15세기의 이들 語彙群에 대한 祖形이 곧 이 「비릇」이었던 것으로 推測되는 것이다.

이 「비릇」은 일찍부터 比較言語學的 考究對象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 比較對象으로 삼았던 形態는 後代의 發達形인 「비릇-」으로 一貫되어 오고 있다. 이 誤謬는 國語史를 모르는 外國人들이 犯해 온 것으로 그들의 意慾에 찬 勞力에도 不拘하고 外國人으로서의 限界를 벗어나지 못한 結果라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見解들을 概觀해 본 다음, 「비릇」의 形態를 分析해 보고 同系諸語 특히 日本語와의 比較에서 본 管見을 펴보기로 한다.

「비릇」에 대한 同系諸語와의 比較는 다음과 같은 說이 있어 왔다.

(1) W.G. Aston(1879)은 國語의 「piloso」와 日本語의 「haji-mete」를 比較하고 있다(宋敏, 1969, p. 82). 그는 近代國語의 「piloso」를 더 分析하지는 못하였지만 近代 日本語의 「hajimete」를 「haji-」와 「-mete」로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國語의 「piloso」를 「p V I V—so」로 分析할 것을 豫想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비로소」의 第2音節子音を 「l」로 보았다. 이것은 日本語의

* 禮國大 教授(國語學專攻)

「r」에 대하여 國語의 「r, l」을 對應시킨 결과인데 이 流音은 마땅히 「r」로 보아야한다. 國語의 「l」은 音節末의 「r」이 閉鎖化되면서 發達한 것이기 때문이다(cf. 李基文, 1972, p. 70). 國語의 「ㄹ」이 「*r」과 「*l」의 合流로 發達하였을 것으로 推測되고 있지만 「비로소」의 形態로선 이것을 「l」로 볼만한 하등의 근거가 없다. 그는 또 日本語의 第2音節子音을 「l」로 表記했으나 이것은 「s」의 有聲音 「z」나 「ts」의 有聲音 「dz」로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는 兩國漢字音을 對照하여 國語의 「p, ph」가 日本語의 「h, f, b」에 대응하는 音韻規則을 찾아 내어 「piloso」와 「hajimete」의 語頭子音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第一音節의 「i」와 「a」의 差異는 이 兩語彙를 比較함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된다. 그럼에도 이 두 單語가 가지고 있는 語意上의 一致는 比較의 可能性을 無視할 수 없는 牽引力이 된다.

(2) G. Ramstedt(1949)는 James Gale의 A Korean-English Dictionary (1911)에 수록된 「pirotta, pirosa, pirosin」에 「pirosan」, 「piroso」를 追加한 다음 「piro+sa-」, 「piro+so」로 分析하고 「piro-」를 다음과 같이 比較하였다.

moL(蒙古文語) *irugal*, mNT(Niuca Tobca'an mongol語) *hiruar*, nmo(new. mongolian) *iroł*, bury. (Buryat語) *ivör*, *ojor*(<*joror) kalm. (Kalmuck語) *joral* 'bottom, base, foundation'

이 比較는 비록 國語史에 대한 깊은 知識에 根據한 것은 아니지만 比較言語學者다운 慧眼이 빛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近代 國語의 「비로소」와 「비로슨」을 「piro+sa-」 「piro+so-」로 分析한 것은 結果的으로는 妥當한 것으로 보인다. 第2音節母音을 「o」로 본 것은 國語史의 知識의 缺如에서 온 것이지만 이것도 어느 면에서는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또 「비로-」의 語意를 同系諸語의 「bottom, base, foundation」에 대응시킨 것은 國語의 「비로」이 古代國語의 漢字借用表記에서 「元」字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示唆的이다. 이 對應은 그의 Altai諸語에서의 語頭音 「p」에 대한 音韻對應規則에 根據하고 있음도 注目된다. 이 音韻對應規則에 들어가는 語彙가 精密한 分析에 根據한 것이라면 共通祖語에까지 소급할 可能性을 充分히 가지고 있다고 하겠기 때문이다. 이 對應例 중에서 Buryat語와 Kalmuck語에서는 第一音節母音이 「i」가 아닌 「o」에 대응하고 있음도 고려해 볼만한 價値

가 있다.

(3) S. Martin(1966)은 國語의 「pilos(-)」을 日本語의 「pito-tu(one)」에 대응시키고 있다. 第2音節의 流音을 「l」로 본 것은 그의 다음과 같은 音韻對應目錄에 基礎한 것으로 보인다. (宋敏, op. cit., p. 64)

	proto K.J.	K	: J
11	*...r...	l	: r
11a	*...rya	...Y	: ...ra
11aa	*...ri...	...i	: ...ri
11b	*...rk...	...lk	: r
12	*...l...	l	: t
12a	*...ld...	l	: d
12b	Noun *...l#	l	: d
12c	*...lc(...)	lc	: c
12cc	*...lg...	lk	: g
12d	*...lǵ-	'l	: k

이 가운데 「pilos(-)」과 「pito-tu」가 대응하는 것은 12에 의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 對應目錄은 批判되어야 할 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國語에는 流音 「r」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장 큰 결함이라 하겠다. 國語에서 「r→l」은 音韻論적으로 說明될 수 있어도 「l→r」은 非自動的 交替이므로 流音의 基本形은 마땅히 「r」로 보아야 한다. 그는 12b와 12c에서 國語의 「lc」와 「lk」를 起源的인 것으로 보았으나 이것은 syncope에 의한 것으로 보았어야 할 것이다. (cf. 李基文, 1961, p. 35) 그는 「비롯」의 「s」를 分離해 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Ramstedt의 見解에서 後退한 것이다. 「비롯」을 「pito-tu」에 대응시킨 것은 國語의 「r」이 起源的으로 「d」, 「t」에 소급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감안하고 末音 「s」를 分析해 내면 그 再構形 「*pito-」는 日本語의 「pito-」에 神通할 만치 일치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렇게 단순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語彙比較에 있어 日本語의 數詞와 新羅語의 系統을 이은 國語와의 比較가 不安하다. 日本語의 數詞는 高句麗語와 系統이 닿기 때문이다. 日本語의 「pito-」는 「bottom, base, foundation」의 뜻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國語에서 「비롯」이 「元」에 대응했던 事實은 이러한 概念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여 준다. 이 점에 있어서는 日本語의

「haji-mete」쪽이 國語의 「piros」에 대응되고 있다. 角川書店刊行 古語辭典에 의하면 「はじめ」는 (1) 最初, 始作 (2) 以前, 먼저 (3) 元, 根本 (4) 主要한 것, 第一 등의 뜻을 갖는다. 이것은 國語의 「비릇」이 「始」「初」「元」의 訓으로 쓰인 것과 일치하는 것이며 Ramstedt가 比較한 同系諸語와도 共通되는 것이다. 따라서 「pito-」 보다는 外形上 거리가 있더라도 이 「haji-mete」와의 比較를 試圖했어야 옳았다. 다음 「pilos-」은 「pito-tu」와 比較할 때 國語의 「r(l)」이 「t」로 소급할 것을 豫想한 것이나 이것은 同系諸語와의 共通성을 無視한 比較가 된다. Ramstedt의 比較에 의하면 國語의 「비릇」의 流音은 起源의인 「*r」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보면 「비릇」과 「pito-tu」와의 比較는 可能性이 희박하다.

여기서 Ramstedt의 說과 Aston의 說을 考慮하게 되나 問題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可能한 範圍까지 추구해 보기로 한다.

「비릇」의 語末音 「s」는 Ramstedt가 疑問符를 붙이면서까지 消去하려 할 만치 比較上에 있어 혹과 같은 存在가 되어 있다. 그러나 國語史에 있어 이 「s」는 하나의 機能을 가진 形態素일 可能性을 보여 준다. 舊譯仁王經에 나타난 高麗時代의 吐를 보면 15세기의 「-ㅅ」에 해당하는 「叱」의 分布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漢文의 語順을 吐의 指示에 따라 國語의 語順으로 놓는다

- (1) 座前叱花, 國土叱中
- (2) 國土叱中良叱一一佛, 大國叱中良叱舍衛國主
- (3) 花以叱上
- (4) 說白五音叱多, 作爲叱徐
- (5) 國土乙護乎叱此因緣, 變乎應飛叱香花乙
- (6) 九百萬億大衆是俱叱爲應之共叱來爲良尔, 定乙從叱起爲示下
- (7) 爾叱爲應時, 可叱爲應, 是叱爲應, 何叱爲應, 然叱爲示下
- (8) 無叱應, 有叱在應二
- (9) 年乙初叱五爲應, 方叱

以上 「叱」은 9가지의 分布를 보여주고 있다. (1)은 無情物의 屬格助詞로서 이 文獻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2)의 「良叱」은 處格과 屬格의 複合이다. (3)의 「以叱」은 向格과 屬格의 複合이다. (4)는 15세기의 「-ㄹ다」, 「-ㅅ」에 해당하는 것으로 感歎法語尾를 構成하는 音素의 表記로

보인다. (5)의 「叱」은 動名詞形에 連結된 것으로서 역시 일종의 屬格助詞라 할 것이나, 「乎隱飛叱(흔뵈)」과 같은 형태는 15세기에는 없는 형태다. (6)의 「俱叱-」과 「共叱」은 모두 15세기의 「다뵈」에 대응하는 것이다. 15세기의 「다뵈」은 副詞로만 쓰였고 動詞로 쓰일 때는 「다뵈ㅎ-」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文獻의 「共叱」은 動詞로서 目的語 俱叱爲隱乙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비릇」이 15세기에 同一形態로서 動詞語幹과 副詞로 쓰인 것과 軌를 같이하는 것이다. 「從叱」은 15세기의 「뵈-」의 自動交替된 異形態 「뵈-」을 表記한 것인지 그 副詞派生形態 「조초」에 「-스」이 連結된 것인지 分明하지 않으나 目的語를 支配하고 있는 점에서는 「共叱」과 같다. 이 問題는 決定하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보류해 두기로 한다. 「共叱」의 「叱」은 (7)과 比較할 때 單純한 語幹末音만은 아닌 것 같다. (7)의 「爾叱爲隱」은 「굿ㅎ」 「可叱爲隱」은 「얼스ㅎ(得)」, 「是叱爲隱」은 「잇ㅎ」, 「然叱爲示下」는 「그뵈ㅎ시하」를 表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叱」은 單純한 語根末音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다. 이것은 「爾」「可」「是」「何」「然」이 用言化하는 事實과 밀접한 關係에 있다. (8)은 15세기의 「없-」「잇-」을 表記한 것이다. 이 「-스」이 單純한 語幹末音인지 形態素인지는 現在로서는 풀기가 힘들다. (9)의 「初叱-」은 「비릇-」을 表記한 것으로 보인다. 「方叱」 역시 「비릇」을 表記한 것이다.

이상 記述에서 問題의 열쇠는 (6), (7)에 달려 있는 것이다. (6)과 (7)에 共通되는 現象은 「語根+스+ㅎ-」이다. 즉 (6)의 「다뵈」은 「담+잇」 또는 「다뵈+스」으로 分析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7)의 「是叱-」「爾叱-」이 「이+스-」「그+스-」으로 分析되는 것과 同軌의 것이다. 이 때의 「-스」은 15세기에 「노뵈」, 「슬뵈없-」, 「다을없-」에 나오는 「-스」과도 밀접한 關係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스」은 用言을 名詞나 副詞로 派生시키는 接尾辭이다. 이것은 「다뵈」과 같은 性格을 띤 「비릇」에도 適用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좀더 論證될 問題가 있긴 하지만 「비릇」에서 比較上的 암이었던 「-스」은 消去될 可能性을 充分히 가진 것임이 들어난다.

「비릇」이 「비르」으로 發達한 것은 「비릇」이 「비르소」로 發達한 다음 第2音節의 「르」가 第3音節의 「소」에 同化되어서 「비르소」가 되고 이 「비르소」가 「비릇」에 類推되어 「비릇」으로 발달한 것이다. 따라서 「비릇」은 後代形

으로 여기서 「-ㅅ」을 消去한다 하여도 직접 「piro-」에 소급하지는 않는다.

15세기에는 「비룻」과 「비룻」이 共存한다. 여기서 이 兩者의 上代形을 「비
르+ㅅ」으로 보고 國語의 「ㄹ」이 Altai 共通語의 「r」로 소급함을 감안하면
우리는 「*piro-」 또는 「*piro-」를 얻을 수 있다.

이 「비룻」은 前述한 바와 같이 日本語의 「hazi-me」와 語意上 一致하고 語
頭音의 對應을 보이고 있다. 日本語의 「hazi-me」는 萬葉集에 「波自米」로 表
記되었다. (萬 18·4137) 高木市之助, 五味智英, 大野 晋 校注本, 萬葉集(日
本文學大系, 岩波書店 1973)의 解說에 依하면 「波」는 「Fa」, 「自」는 「zi」를
表記한 것으로 되어 있다. 「zi」는 音韻論的 序列에서 볼 때 「dzi」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이는 *padzi-로 推定해 볼 수 있다. Aston의 對應目錄에 依하면
國語의 「l(r)」은 日本語의 「chi, tsu, dzu, shi, ji, s」로 대응한다고 한 것이
注目할 만한 것이다. 「Fa」역시 「pa」로 소급하는 것이므로 母音을 除外하
면 「비룻」과 「hazime」는 一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對應에 있어
母音의 不一致는 현재로서는 說明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國語와 日本語의
對應關係에서

Ja.	Ko.	Ja.	Ko.
*pata(田)	pat	kura(谷)	kol
kasa(笠)	kat	kutsa(草)	koč(花)
*kōta(事)	kās-	nata(鉞)	nat(鏢)
*gupa-(美)	kop-	sima(島)	syəm < *sima
kuma(熊)	kom	tumë(爪)	top

등이 比較的 確實한 對應例로 舉論되고 있다. (村山七郎, 1974. p. 88~9에
Denis Sinor編. Aspects of Altaic Civilization, Indiana University Publica-
tion. Uralic and Altaic Series, Vol. 23, pp. 227-233의 例를 再引用하여 國
語의 第2音節末音이 脫落된 事實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第
一音節母音이 鮮명한 一致를 보인다. 이에 比하면 「비룻」의 對應은 不安한
形態이다. 그러나 韓半島를 거쳐간 日本의 移住民이 同時的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하면 日本語의 「*padzi-」는 보다 더 古代形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